



금융감독원

# 보도자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

2023.8.2.(수) 조간

배포

2023.8.1.(화)

담당부서	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	책임자	단장	장창호	(02-3145-7830)
		담당자	반장	박시문	(02-3145-7832)
			반장	이상헌	(02-3145-7835)
			반장	이동영	(02-3145-7836)
			반장	오창화	(02-3145-7837)

**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 
신속하고 과감한 시장퇴출 등  
펀드시장 질서확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**

## I. 배 경

- '15.10월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

\* 사모운용사(개사) : '20년말(252) → '23.6말(376)    \*\* 사모펀드 수탁고(조원) : '20년말(438.4) → '23.6말(577.8)

- 장기 모험자본 공급, 맞춤형 투자기회 제공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.

- 한편, 금융감독원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

- 일부 사모운용사가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실사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
- 등록유지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공시의무를 해태하고 등록(라이선스) 프리미엄 유지를 위해 정상 운용사의 외양만 갖추는 등
-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선관·충실의무도 방기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었습니다.

-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대표적인 지적사례(4건)를 공개하고

-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장퇴출 등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

## II. 사모펀드 시장 현황

- **(진입·퇴출현황)**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('15.10월) 이후 최근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신규진입\*하였으나

\* IPO 시장열풍에 편승해 기관투자자 지위로 공모주 우선배정을 받기 위한 신규진입도 다수 ('23.6말 기준 수탁고 500억원 이하 & 등록 3년 이내 사모운용사가 보유한 펀드의 57.5%가 공모주펀드)

-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,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음에도 퇴출(자진폐지, 등록취소 등)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합니다.

사모단 출범('20.7월) 이후 사모운용사 진입·퇴출 내역('23.6말 현재)

(단위 : 운용사 수)

구분	진입(A)	퇴출(B)					순증 (A-B)
		공모사 전환 · 합병	자진폐지	직권말소	등록취소	합계	
사모운용사	156	9	2	-	2	13	143

- **(부적격 운용사 퇴출지연)** '23.5월말 기준 9개사가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(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100분의 70)을 미충족하고 있고

- 1개사는 6개월의 유예기간도 경과하여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제재조치가 진행중입니다.

- 또한, 2개사(제재조치 등 진행중)는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하여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

- 펀드 수탁고가 잔존할 경우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절차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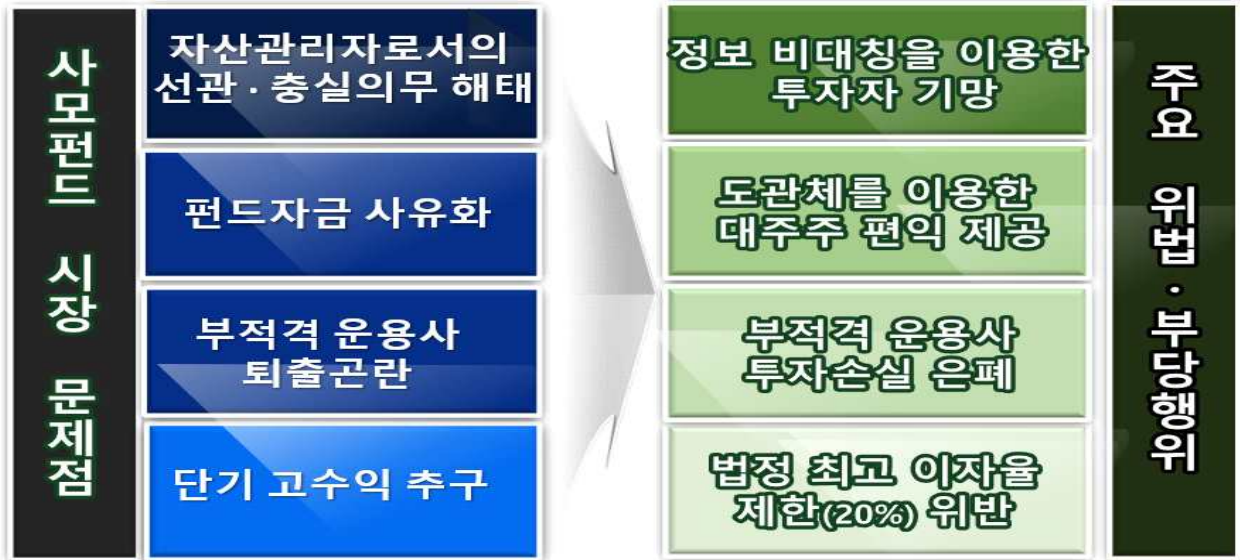
- **(겸영·부수업무 비중 과다)** '23.1분기 기준 사모운용사 영업수익 중 자문·일임·대출중개 등 기타수익이 39.2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
- 일부 사모운용사(61개사)는 기타수익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겸영업무 위주의 단기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업무행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

- 대출중개·주선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(20%)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.

### Ⅲ. 주요 지적사례

- ◆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,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,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등 다양한 위법·부당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.



※ '23.7월 현재 제재조치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조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## 1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

- ◆ 정보비대칭이 큰 고위험 장기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장실사도 없이 진행상황을 허위기재하는 등 투자자를 기망한 사례

- ① (자산운용보고서 허위기재) A운용사는 ㉠호 대체펀드 사업장이 시공사의 부실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\*을 알고 있었음에도
  - \* 해당 시공사는 ㉠호 대체펀드의 16개 사업장 중 1개만 정상적으로 공사진행
  -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기재 하였습니다.
- ② (투자자 기망) 이후 기존 ㉠호 펀드 수익자들에게 시공사가 동일한 ㉡,㉢호 펀드투자를 추가 권유하면서 허위기재된 ㉠호 펀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한 결과
  - ㉠호 펀드 수익자들이 ㉠호 펀드가 정상 운용되고 있다고 오인하여 ㉡,㉢호 펀드에 대한 추가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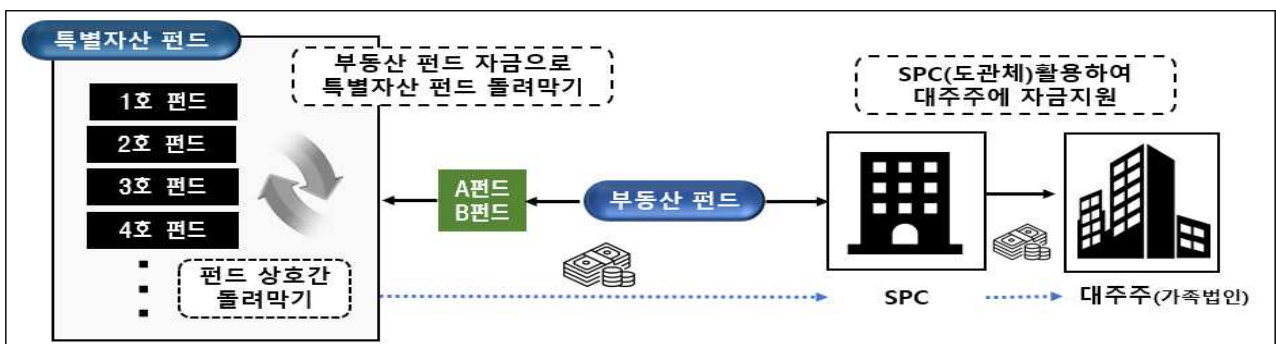
- 또한, 일부 기관투자자의 요청으로 실시한 현장실사에서도 부실 사업장과 무관한 정상사업장을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를 기망 하였습니다.



## 2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제공

### ◆ 대주주 필요에 따라 펀드자금을 유용하는 등 고객자산을 사유화한 사례

- (대주주 편익 제공)** B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도관체를 통해 특수관계자 등에게 펀드 자금을 송금\*하였습니다.
  - \*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펀드자금으로 인수한 후 특수관계인 등에게 자금을 송금
- (펀드 돌려막기)** 아울러, 운용중인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특별자산 펀드 간 자금 돌려막기\*를 통해 부실을 은폐하였습니다.
  - \* 특별자산 펀드 상호 간 또는 여타 펀드의 자금을 통해 사모사채를 추가 편입한 뒤, 유입된 펀드자금으로 기존 사채를 상환하는 방식의 돌려막기
- (사기적 부정거래)**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거짓 기재된 문서를 이용해 甲재단을 기망하여 200억원을 유치하였고
  - 甲재단으로부터 유치한 자금 일부를 기존 특별자산 펀드가 편입한 부실 사모사채 상환에 충당함에 따라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 하기도 하였습니다.



### 3 부적격 운용사 투자손실 은폐

◆ 최소한의 등록유지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용사가 라이선스 유지를 위해 투자손실을 은폐한 사례

- ① (등록유지요건 미충족) C운용사는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최저 자기자본(7억원)에 미달하였으며
  - 투자운용인력 최소인원 유지요건 미충족, 준법감시인 미선임 등 법상 최소한의 등록유지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.
- ② (자산운용보고서 손실은폐 등) 한편, C운용사는 해외주식 상장폐지 (200억원 상당)로 인하여 6개 펀드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
  -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등 펀드 투자손실을 은폐하였습니다.
- ③ (검사불응) 더욱이, 검사 수검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감독당국의 현장검사시 폐문상태로 고의로 연락에 불응하는 등 검사업무 수행을 방해하였습니다.



### 4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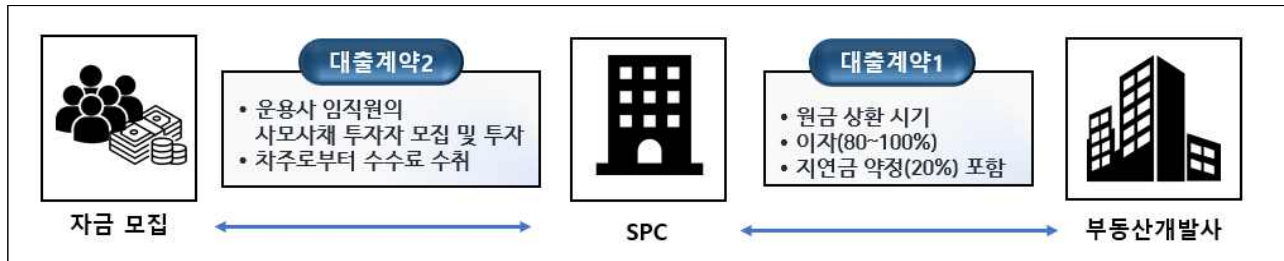
◆ 단기 고수익 추구를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(20%)을 위반하여 대출한 사례

- ① (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) D운용사는 펀드 또는 고유재산에서 부동산 사업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서 최고이자율 제한(20%)을 위반하였습니다. [펀드 27건(1,351억원), 고유재산 8건(212억원)]
  - 부동산 개발회사에게 최고 이자율(20%)을 초과한 고리(高利)의 대출을 중개(최고 166.7%)한 후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습니다.



- ② (경영업무 위반) 또한, D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대출 중개업의 업무범위로 허용되지 않은 일반법인·개인간 대출을 중개\* (47건, 2,572억원)한 사실이 있습니다.

\* 개발사(차주)에 자금을 대여하는 SPC 설립 후 임직원, 지인 등에게 SPC발행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일반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부동산 개발회사에 대한 대출을 중개



## IV. 향후 계획

-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 자금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국민자산 증식 및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자산운용업의 본질임에도
  - 법적으로 인정된 금융회사 지위(라이선스)를 사유화하여 본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불법·부당행위를 일삼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.
-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시장이 투자자의 안정적 자산증식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 확립 및 신뢰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.
  - 특히,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하여
    - ① 라이선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,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.
    - ② 아울러,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,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(원스트라이크아웃)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\*을 추진하는 한편
      - \*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[별표 3] 개정 추진
    - ③ 부정·불법 행위,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